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도자료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5.8.20.	담당부서	영화/문화산업	
연락처	323-936-7141(내선 116) lila@kccla.org	담당자	장선지(Jang, Seonji)	

주LA한국문화원, 김태용 감독 초청 영화상영회 개최

- 김태용 감독의 대표작 <가족의 탄생>, <만추>, <원더랜드> 상영 -

- ▶ 행 사 명 : ‘김태용 감독과 함께하는 2025 K-시네마 투어링’
- ▶ 행사일정 : 2025년 9월 28일(일) ~ 9월 30일(화)
- ▶ 장 소 : Gardena Cinema, Chapman University, USC 등 3곳
- ▶ 주 최 : 주LA한국문화원
- ▶ 행사문의 : 장선지 실무관(323-936-7141(x 116), lila@kccla.org)

주LA한국문화원(원장 이해돈)은 영화 <가족의 탄생>, <만추> 등으로 잘 알려진 김태용 감독을 초청해 9월 28일부터 3일간 가데나 극장(Gardena Cinema), 채프만 대학교(Chapman University) 및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에서 ‘2025 K-시네마 투어링’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대학 외에 지역 극장 상영을 추가하여, 기존 영화 전공자 중심에서 지역 커뮤니티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반 관객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현지인들에게 한국영화를 소개하고 관심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시네마 투어링’은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 인근 주요 대학의 영화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한국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영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주LA한국문화원은 한국의 영화 제작자와 감독을 초청해 한국영화의 제작 환경과 스토리텔링 기법 등을 소개하는 강연회를 열어 할리우드의 차세대 영화 제작자들에게 한국영화를 알리고 한미 영화 산업 간의 교류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동안 류승완, 정주리 감독을 시작으로 이창동, 박찬욱, 황동혁, 봉준호 감독 등 총 17명의 한국 영화계 중견 감독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매년 UCLA, AFI, 채프만 대학교 등 미 서부 소재 명문 영화학과 대학 학생들과의 만남이 이어져 왔다.

올해는 김태용 감독과 함께 9월 28일 오후 3시 미주중앙일보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던 가데나 극장, 9월 29일 오후 4시 채프만 대학교 폴리노 극장(Folino Theatre), 9월 30일 오후 7시 USC 에이린 노리스 시네마 극장(Eileen Norris Cinema Theatre)에서 각각 <만추> (2011), <가족의 탄생> (2006), <원더랜드> (2024)를 상영하고,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성 장인’이라 불리는 김태용 감독은 1999년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장편 데뷔한 이후, 영화는 물론 연극과 공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태용 감독의 영화는 참신한 스토리와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개성있는 연출로 관객들에게 폭넓은 공감과 깊은 울림을 준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영하는 <가족의 탄생>, <만추> 및 <원더랜드> 등 세 편의 영화는 김태용 감독의 장편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이다. 김태용 감독은 <가족의 탄생>과 <만추>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진정성을 담아내며 호평을 받았고, <원더랜드>는 국내 최초 AI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으로, AI 시대의 인간성의 결핍과 관계 맺기의 문제를 참신한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LA 지역 주민들에게도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해돈 문화원장은 “기존에는 대학 내 영화 전공자 위주로 진행되던 특별프로그램 성격에서, 지역 커뮤니티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장된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층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든 상영회는 문화원 홈페이지(www.kccla.org)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끝/

(붙임 1) ‘2025 K-시네마 투어링’ 포스터